

碩士學位論文

『오셀로』에 나타난  
데스데모나의 여성성과 비극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洪 美 京

2008年 8月

碩士學位論文

『오셀로』에 나타난  
데스데모나의 여성성과 비극

指道教授 宋一商

洪美京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8月

洪美京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8年 8月

<국문초록>

『오셀로』에 나타난 데스데모나의 여성성과 비극

洪 美 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道教授 宋 一 商

이 논문은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비극 『오셀로』(*Othello*)에 나타난 엘리자베스시대의 가부장적 사회체제아래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남성들에 의한 여성성의 파괴와 몰락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문제를 데스데모나(Desdemona)를 중심으로 밝히는데 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의해 소유물과 같은 존재였다. 따라서 여성은 침묵 그 자체이거나 설령 남성다운 여성조차도 남성의 위치에서 여성의 역할을 해야만 했다. 남녀의 성은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시대의 극작가들은 그들의 작품에서 여성에 대해 그리고 불안정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 극화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가부장체제 아래에서 남성들은 여성들의 언어와 성을 지배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셀로』에서 데스데모나는 그녀의 언어가 지배됨으로써 남성들의 대리적인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한 여성의 언어는 한 남성의 쓸모없는 무모한 권력으로 종속되어지고, 이 무모함은 그 여성을 지배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까지도 파멸로 이끌 수 있다. 이 극을 통해서 남성들은 서로 갈등과 긴장 속에서 싸우면서 발전하는데 그들의 분쟁의 희생자는 여성들이 되게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데스데모나의 순수함과 적극적인 자존심은 이아고(Iago)의 간계로 오셀로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그로인해 데스데모나는 여성성의 충돌과 시련을 겪게 된다. 그 결과 무모하게도 순수한 한 여성의 여성성을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남성들의 무의식적 개입에 의해 그들의 목표 대상을 황폐화하기위해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 놓여 졌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오셀로와 데스데모나 모두가 끝내 간계에 의한 희생자들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사회의 질서를 절실히 유지하려고 한 그들은 자신들의 여성의 능력을 박탈함으로써 사회의 무질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전락한다.

---

\* 본 논문은 2008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결론적으로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선 자연적, 사회적 질서 모든 창조물 사이에 등급을 포함한 질서의 파괴자들은 마침내 죽음으로 발전한다. 아버지의 강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불운한 영웅은 그들의 계급이 아닌 낮은 이방인 오셀로와 결혼을 함으로써 전통적인 질서를 거스른다. 우리는 잘못된 결혼으로 인한 두 인물을 통해 테스테모나는 내면적으로는 균형을 원했지만,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베니스 사회에서 베니스인인 테스테모나가 오셀로를 향하여 느끼는 매력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 것이며 용납되지 않는 행위이다. 다시 말하면, 테스테모나의 시대를 초월한 적극성은 베니스라는 사회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 목 차

I. 서 론	1
II. 엘리자베스 시대의 세계관과 여성관	
1. 세계관	4
2. 여성관	11
III. 데스데모나의 여성성과 비극성	
1. 데스데모나의 여성성	15
2. 데스데모나의 시련	21
3. 데스데모나의 몰락과 비극성	36
VI. 결 론	45
BIBLIOGRAPHY	48
ABSTRACT	51

# I. 서론

셰익스피어(Shakespeare)시대는 영국의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였고 불완전한 시대였다. 중세 봉건체제가 붕괴되고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회의가 생겨나면서 우주관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1604년에 쓰여진 『오셀로』(*Othello*)의 소재 역시 셰익스피어의 다른 비극과 구분되는 특수성을 보여준다. 셰익스피어는 1570년대를 정점으로 베니스(Venice) 사회에서 실제로 외국용병을 국가 방위에 이용했던 점을 작품의 소재로 다루어, 여기에 작가적 상상력을 더하여 이 작품을 극화하였다. 특히 『오셀로』의 배경이 되는 베니스 사회는 서구에서 가장 먼저 상업사회로 자리를 잡은 도시 국가 가운데 하나였으며 개방된 사회였고, 또한 베니스는 권력, 돈, 격식 등 세속적인 논리가 세력을 떨치는 지역으로 명예, 법, 지식, 등으로 대표되는 이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곳이었다.

또한 셰익스피어가 극을 쓰던 시대는 옛 질서와 새 질서가 공존하면서 혼란과 발전을 거듭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사회와 경제 구조 및 신분계급 구조의 변동이 시작되었으며, 전통적인 가치관과 고정관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으로써 문화적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고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지위에 있어서도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는 전통적인 가치와 함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풍조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1580년부터 1640년에 이르는 영국의 근대 초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사회의 조직에서 막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때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엘리자베스시대 사람들은 새로운 인간관과 세계관으로 인해 사회질서의 와해와 위계질서의 혼란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특히 남녀간 기존질서의 위기와 불안감 조성의 주 대상은 바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는 여성들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위계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성들은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르네상스의 참 정신을 경험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들은 중세 시대에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 정치적 권한이 축소되고, 성적인 자유와 문화적 역할을 상실하게 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르네상스의 문화적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엘리자베스 시대의 여성들은 중세의 봉건제도가 사라지고 여러 나라가 중앙집권화 되면서 과거의 여성들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던 정치적인 권력마저도 상실했다. 그리고 ‘궁정식 연애’(courtly love)가 유행하던 시절 누릴 수 있었던 중세 여성들의 성적 자유 또한 상실하고 정조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게 되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인문주의 교육자들의 보편주의적 사고방식(the universalistic outlook)을 받아들임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을 잃게 되었다.<sup>2)</sup>

물론 당대는 세계관과 인간관의 변화와 더불어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의문과 회의의 정신이 지배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자연, 우주, 가족 구조 등의 근본적인 위계질서의 차별화가 자연의 이치로 여겨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질서의 개념을 흔들면서 남녀 관계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예컨대 여성의 본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휴머니스트(humanitarian)들이 여성 교육론을 제기하고, 남성 복장을 한 여성이 출현하는 등 여러 변화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들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여성의 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역사적 요인들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요인들은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여성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엘리자베스시대 당시에는 남성에게 의존하고 순종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여성의 미덕으로 간주되었지만, 셰익스피어는 극작품 속에서 이러한 사회구조에 순순히 순응하는 수동적인 여성보다는 자신의 독자적인 삶의 목표를 추구하고 통제능력을 지니며 존재의 의미를 훌륭하게 확보해 나가는 여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수동적이며 무기력한 여성들도 등장하지만, 한 개인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명확히 견지 할 뿐 아니라 당대 여성들에게 기대되는 관습적인 행동 양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는 강하고 매력적이며 지적인 여성

---

2) Joan Kelly-Godol, "Did Women Have a Renaissance," *Becoming Visible: Women in European History*, ed. Renate Bridenthal and Claudia Koonz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97), pp. 145-52.

들도 등장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여성들은 흔히 편의상 두 가지 종류로 구별할 수 있는데 선량하지만 피해자(victim)인 여자들이거나, 아니면 사악하며 성격이 강한 인물로 표현이 된다. 비극적인 선한 여성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데스데모나를 손꼽을 수 있는데 그녀는 백합처럼 청초하고 순결한 미덕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편의 손에 목숨을 잃는 비극을 맞이한다. 반면, 사악하고 성격이 강한 여성의 대표적인 인물은 레이디 맥베스(Lady Macbeth)의 경우인데, 위협적이며 파괴적이고 남성적인 세력으로서 남성들의 세계를 오히려 지배한다. 이처럼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그려지는 여성들은 르네상스의 시대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속박으로부터 르네상스가 해방시킨 인간은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다. 우주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인간이 중세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여성은 아직도 남성이 만들어놓은 가부장 제도의 사슬을 벗을 수가 없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들은 지적인 면에서나 외형적인 면에서 남성 못지않은 자율권을 누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성을 속박하는 악습은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르네상스 시대에도 계속되었다.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당시의 풍습이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여성들에겐 봉건의 악습이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오셀로』에서 주인공인 데스데모나 역시 작품 속에 그려지는 가공의 인물이지만 그녀는 그 시대의 여성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서 엘리자베스시대의 권력체계, 사회 경제적구조의 틀로 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진 문제 중의 하나가 여성성의 문제이다. 본 논문은 남녀인물들의 갈등을 통해 여성성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는 질서관 그리고 엘리자베스시대의 여성관을 조명해보면서 시대적, 사회적 흐름이 질서의 법을 역행할 수 없음을 작품을 통해 살펴 볼 것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엘리자베스시대의 세계관과 르네상스라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 사회에 따른 여성관을 고찰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데스데모나의 여성성에 나타난 특성, 가부장체제에 따른 데스데모나의 시련, 그리고 데스데모나의 몰락의 과정을 통해, 엘리자베스 시대의 여성을 대표하는 적극적이고 순수한 여성이었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비극적 파국을 맞이하는 과정을 그녀의 비극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Ⅱ. 엘리자베스 시대의 세계관과 여성관

### 1. 세계관

일반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난 당시의 사회적 세계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자연현상과 관련된 질서에 대한 당시의 개념은 거의 모든 셰익스피어 작품 속에서 극적주제를 이해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중세로부터 내려오는 인간과 우주에 대한 뚜렷한 질서관이 확립되어 있었다.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시대의 영국은 르네상스이라는 물결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던 시기로서 사람들은 과거 왕족 간에 장미전쟁(the Wars of the Roses, 1455-85)으로 인하여 겪었던 혼란과 무질서에 회의를 느꼈으며 이러한 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확고한 질서 개념을 갖게 하였다. 당시의 사람들은 개인, 사회, 국가 그리고 자연은 모두가 한 질서 속에서 각자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유기적관계로 구성되어 이 모든 질서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질서 개념이란 우주의 구성체는 각기 정해진 자기 서열이 있으며 이러한 서열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열을 살펴보면 최고의 위치에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천사,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광물 등의 순서로 서열이 정해져 있다. 천사는 인간 보다 인간은 동물보다, 동물은 식물보다, 식물은 광물보다 각각 우위의 위치를 갖고 있고 광물은 존재하기만 할 뿐이며 식물은 여기에다 성장력을 하나 더 지니고 있다. 또한 동물은 여기에 시각, 후각, 미각, 감각을 추가로 지니고 있고 인간은 이들이 갖고 있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리하여 인간은 다른 존재보다도 우위에 존재한다. 그리고 천체의 세계에서는 태양이, 인간 세계에서는 왕이나 지배자가 우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간세계 중

에서도 아버지는 가족의 우두머리이고 남자는 여자보다 우위이다. 한편 이런 각각의 세계에서 최고의 우위에 있는 존재들은 서로 상응하는 조화의 관계를 지닌다.

실제로 셰익스피어는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 (*Troilus and Cressida*)에서 율리시스(Ulysses)를 통해 당대의 우주와 사회의 질서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천체도, 유성도, 지구도 계급, 상하관계, 위치,  
지속, 방향, 균형, 사철, 형태,  
직권, 관습 등 온갖 질서를 준수합니다.

.....

그러나 유성들이 잘못 혼합하여 문란하게 돈다면,  
흑사병과 흉조, 반란과 바다의 격랑, 지진과 폭풍이  
일어납니다. 두려움, 변화, 공포는 국가의 통일과  
화평을 변화시키고, 죽이며, 뿌리 채 뽑아서 뒤흔들어  
놓습니다. 아! 질서가 흔들리면-질서는 온갖 고상한  
계획의 사다리에도 같은 것이어서-만사는 병들어 버립니다.

.....

질서를 없애버리면, 악기의 화음을 제거해 버리면  
큰 무질서가 따르게 됩니다.  
이 혼돈은 질서가 질식되었을 때  
그 질식 뒤에 나타납니다.

The heavens themselves the planets, and the center  
Observe degree, priority, and place,  
Infixture, course, proportion, season, form,  
Office and custom, in all line of order.....

.....But when the planets

In evil mixture to disorder wander,  
What plagues and what potents, What munity?  
What raging of the sea, shaking of earth?  
Commotion in the winds, frights, changes, horrors

Divert and crack, rend and deracinate  
 The unity and married clam of states  
 Quite from their fixture. O when degree is shaken,  
 Which is the ladder to all high designs,  
 Peaceful commerce from dividable shores. ( 1. 3. 85-105 )

국가는 이질적인 개인들의 집합체이지만 화목과 질서에 의해서 한 가족같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연의 미는 곧 질서로, 자연의 온갖 완성은 곧 질서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질서(*order*)와 조화(*concord*)는 위대한 업적을 낳지만 무질서(*disorder*)와 부조화(*discord*)는 위대한 업적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이 질서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계층조직에서 부여받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부여받은 자리보다 높거나 낮은 자리를 점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상황적인 진화를 전적으로 배제하거나 용납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해도 남의 자리를 강점하는 것은 질서의 법 혹은 위계의 법을 어기는 것이어서 죄가 되는 것이다. 이 질서의 법, 위계의 법은 자연의 법으로도 불릴 수 있다. 왜냐하면 질서는 자연에 맞고, 무질서는 자연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신하는 무질서를 만들어 내며, 그것은 자연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제일 낮은 피조물을 제외하고는 그 이외의 어떤 피조물을 지배하는 동시에 그 이외의 어떤 다른 피조물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이 우주의 안정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달려있다. 신 아래의 어떤 피조물도 고립된 자급자족의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어떤 것도 개체를 위한 자체의 법을 만들 권리가 없다. 이와 같은 관계의 유지가 파괴되면, 예를 들어 신하가 찬탈행위를 한다면, 무질서와 혼돈, 곧 파국이 초래되며, 일단 파국이 오면 연쇄반응을 일으켜 선한 자, 악한 자, 죄를 지은 자, 죄 없는 자 모두가 파멸된다. 이와 같은 상황전개는 셰익스피어 비극의 궁극적인 힘이 펼치는 상황전개와 일치한다. 따라서 셰익스피어 비극의 궁극적인 힘을 질서의 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그럴듯한 것이 된다.

우주는 천사들의 차원, 인간사회의 차원, 동물의 차원, 식물의 차원 등 일단의

평행을 이루는 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차원에서는 서로 상응하는 계층조직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태양은 천체차원에서 최고위에 있는 유성이고, 인간사회 차원에서는 왕이 최고의 인물이고, 꽃의 차원에서는 장미가 최상이다. 이리하여 왕은 태양과 장미와 일치하거나 그에 상응 한다. 셰익스피어가 종종 왕을 “태양”(King Richard doth himself appear,/ As doth the blushing discontented sun, *Richard2*, 3. 3. 62-3)이나 “장미”(To put down Richard, that sweet lovely rose, *Henry4*. 1.3.175)에 비유한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태양과 장미는 서로 상응하는 위치에 있는데, 이 중의 어느 한 차원에서 생기는 무질서는 상응하는 다른 차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질서를 일으키며 종국적으로는 전 우주의 와해를 가져온다.

사실 우리는 우주의 질서, 국가의 질서, 인간 내부의 질서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오묘한 상응들 혹은 일치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셰익스피어 작품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원칙이나 원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철학에서, 질서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셰익스피어 비극에서는 사람이 일단 질서법, 자연법을 파괴하여 무질서가 생기면 그 장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 죄 없는 주변 사람들까지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무고한 오펜리아(Ophelia), 데스테모나, 코델리아(Cordelia), 레이디 맥베스와 그녀의 아들까지 가차 없이 죽음으로 내모는 셰익스피어 비극의 궁극적인 힘을 질서법 혹은 자연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셰익스피어 비극의 궁극적인 힘은 인간들로부터 값지게 생각되는 것들을 모두 앗아가 버린다. 예컨대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의 사랑, 햄릿(Hamlet)의 지성, 클레오파트라(Cleopatra)의 천재성, 오셀로의 고상함, 맥베스(Macbeth)의 불굴의 용기와 뛰어난 시적 상상력 등을 송두리째 앗아간다. 셰익스피어 비극세계에는 찬란히 빛나는 선이 있지만 악랄한 악도 있다. 선이 악을 압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고문과 자기소모이며 이 사실이 바로 비극이다”<sup>3)</sup> 라는 브레들리(A. C Bradley)의 유명한 말처럼 선이 악을 무찌르는 데는 선의 소모, 즉 선의 자기희생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역시 셰익스피어 비극이 함축한 비

3) A. C Bradley, *Shakespeare Tragedy* (London: Macmillan, 1974), pp. 37-39.

극적 사실이라는 데 의의가 있을 수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비극의 궁극적인 힘이 인간의 귀중한 것을 모두 앗아가는 셰익스피어 비극의 막이 내릴 때 우리는 반발하지 않는다. 그 결과에 승복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히 가라앉고 역시 인생은 살아 갈 가치가 있으면 인간은 훌륭하다는 일종의 묘한 환희를 경험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s)의 말을 빌리면 카타르시스(catharsis)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비극의 주인공들은 죽을 때 인간의 온갖 장점들을 다 드러내고, 인간의 온갖 가능성을 다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들의 스케일은 거대하며 높은 차원에 올려 지기 때문이며, 그들의 정신력의 위력적인 범위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다. 맥베스는 악인인 동시에 폭군으로 파멸하지만 그가 가졌던 모든 희망이 하나씩 무너져버리고 마지막 버팀목,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진 다음에도 가히 초인적이라 할 수 있는 감탄할 만한 위대한 용기로 버티다가 죽음으로써 최후를 맞을 때나, 르네상스 시대의 지성인의 상징이며 온갖 잠재력과 군왕으로서의 최상의 자질과 덕성을 완비한 햄릿 왕자가 독을 바른 음모의 검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국민의 기대를 끝내 실현하지 못한 채 죽을 때, 그들의 운명에 대한 단장을 끊는 듯한 슬픔에 잠길 수는 있어도 결코 우울해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햄릿의 말처럼 인간은 역시 걸작품이며 “세상의 꽃이요, 만물의 영장”(the beauty of the world, the paragon of animals)(*Hamlet* 2.2.311)으로, 그 어는 때에도 결코 타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귀한 피조물임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둘째, 셰익스피어 비극에서 선과 악은 대결 속에서 모두 쓰러지지만 막이 내릴 때는 깨졌던 질서가 다시 복구된다는 강한 암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햄릿에서는 햄릿왕자를 감동시킨 바 있는 결단과 행동의 노르웨이 왕자 포틴브라스(Fortinbras)가 덴마크(Denmark)의 왕으로 들어선다는 함축이 있으며, 『맥베스』(*Macbeth*)에서는 말콤(Malcolm) 왕자가 스코트랜드(Scotland) 왕위를 되찾아 부왕을 승계함으로써 선정이 기약되어 있으며, 『리어왕』(*Lear*)에서는 에드거(Edger)와 올버니(Albany) 같은 인물들이 질서의 뒷수습을 한다. 『오셀로』에서도 역시 캐시오가 사이프러스의 총독에 올라 이아고(Iago)를 고문하고 처형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것은 질서 회복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이와 같

은 셰익스피어 비극의 결말은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비극의 궁극적인 힘에 대한 공포를 완화시켜준다. 한편 이 공포는 인간이 뛰어난 장점들을 많이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파멸된다는 신비감과 파멸된 주인공들에 대한 동정심 등과 결합하여 관객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카타르시스를 체험하게 한다.

『오셀로』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궁극적인 힘의 예를 볼 수 있다. 데스테모나와 오셀로가 싸이프러스(Cyprus)섬에 도착하기 전 몰아닥친 “폭풍우와 거친 파도”(ill-wind, desperate tempest)등은 다가올 도덕적 불확실성과 비극성을 예고해 준다. 또한 로드리고(Roderigo)가 한 밤중에 브라반시오(Brabantio)의원을 잠에서 깨워 딸의 결혼 행각을 알리자 그는 이 일이 자신이 꿈과 일치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렇듯 셰익스피어의 비극 작품에서 우리는 위계질서를 어기게 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자연 및 사회적 질서에 변화가 일어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질서에 혼란을 몰고 온 당사자에게 돌아 갈 뿐만 아니라 무고한 자들 까지도 희생을 강요당함을 볼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부터 질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지고 유지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화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오셀로』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제반 사회적, 정치적 질서의 어긋남을 볼 수 있다. 오셀로라고 하는 흑인이 백인 집단인 베니스라고 하는 사회에 등장하여 이들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며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 극의 비극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베니스라고 하는 공동체에서의 이방인 오셀로는 비록 그 안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들과 융합되지는 못하여 사람들과 마찰을 빚어 결국 비극을 초래한다. 셰익스피어 극에서의 이러한 이방인으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하여 에드워드(Philip Edward)는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에서의 샤일록(Shylock)과 『오셀로』에서의 오셀로를 예로 들면서 공동체와 이런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는 마찰이 생겨서 그들은 이 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전복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지속성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4)</sup> 즉 이러한 이방인으로서의 유대인인 샤일록과 흑인인 오셀로는 이들이 소속돼 있는 공동체에서의 부적응과 어울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지역 사람들과 이질감과 괴리감을 낳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및 관습적 질

4) Philip Edwards, *Shakespeare: A Writer's Progress* (New York: Oxford UP, 1986), p. 145.

서를 어긋나게 하는 효과와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모든 질서의 파괴가 반드시 비극을 초래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주인공들은 죽음으로써 끝을 맞이하지만 극의 종말에서는 반드시 질서의 회복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인본주의 사상에 의한 낙관주의적 영향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의 비극 작품과 관련한 사상적 특징을 들면 엘리자베스 시대의 사람들은 당시 사회, 국가, 그리고 자연 속에는 언제나 뚜렷한 질서가 존재함을 믿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비극 작품에서는, 혼란이나 무질서가 지나간 뒤에는 반드시 비극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비극발생의 원인은 주로 권력에 대한 지나친 욕망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인간의 위대함과 존엄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잃지는 않았으며 모든 창조물들이 균형의 논리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시 엘리자베스 시대의 이러한 질서관을 정리하여 보자면 첫째,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 각기 정하여진 위치를 지킴으로써 우주와 조화를 이룰 수 있었으며, 둘째는 이런 우주의 창조물들은 각각의 세계에서 서로 상응하는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간 세계의 왕과 식물 세계의 장미는 동등한 위치를 지니고 있는 식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질서 안에서 어느 한 세계에서 혼란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와 상응하는 다른 세계에까지 연쇄적으로 혼란이 파급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작품 속에서도 매우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질서관으로,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이러한 질서의 파괴로 인하여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고 비극으로 발전함을 알 수 있다.

## 2. 여성관

르네상스 시대에 살던 유럽 사람들은 그 동안 억눌려 왔던 문화와 학문, 그리고 과학발전에 있어서의 부활을 경험했다. 그렇지만 그 르네상스는 모든 사람에게만 다가왔던 것은 아니다. 그 시대를 살던 평범한 여성들의 일상의 생활은 어떠했으며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들은 결혼 전에는 남성들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며 문화의 혜택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르네상스 시대에 여성은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을 하며 지내야 했던 처녀시절을 마감한 여성이 결혼을 해서 자신의 가정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지위나 권리가 신장되었던 것은 아니다. 16, 17세기 영국에서의 아내의 지위와 권리는 그 이전 보다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한 이유를 스톤(Lawrence Stone)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이유를 든다. 첫째는 “혈족관계의 약화”(the decline of kinship)이다. 즉 가족제도가 핵 가족화함으로써 여성들은 자신의 혈족의 보호를 상실한 채 남편의 권위, 때로는 착취에 노출되게 된 것이다. 둘째로는 국가와 법률이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는 것을 범질서의 주요한 “담보”(guarantee)로 간주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신교의 결혼의 “신성화”(sanctification)와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성을 종속화 시켰다는 주장이다.<sup>5)</sup>

여성들은 결혼을 하여 남편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이 신성한 의무라고 교육을 받았으며 여성들은 성직자들의 가르침을 내재화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당연한 미덕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아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었을까? 첫째로 여성은 경제권이 없었다. 다시 스톤의 말을 빌리자면 “결혼한 후 아내가 소유하거나 팔아버릴 수 있는 재산은 결혼 계약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한정된다. 결혼에 의해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는데 그 한 몸이라는 것은 남편이었다. 남편은 아내의 모든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의 권리를 가지며 마음대로 팔 수 있었다”<sup>6)</sup>고 한다. 여성의 법률적인 권리가 아버지나 남편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5) Lawrence Ston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New York: Harper & Row, 1977), p. 7.

6) *Ibid.*, p. 195.

제한되었던 것이다. 여성은 명백하게도 자유인이 아니었으며 어린 아이와 마찬가지로 선거권 또한 있을 수 없다.

재산권의 박탈뿐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구타할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비록 법적인 범주에 타당한 교정이 아닐 때는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덧붙이기는 했지만 아내가 범법자, 반역자, 이교도인 적과도 같은 범주에서 취급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내에게 복종뿐만 아니라 정절도 요구되었는데 만약 아내가 다른 애인을 가졌을 경우 토지, 돈, 그리고 귀족 칭호를 다른 남자의 자식이 상속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 나아가서 아내의 육신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남편의 재산으로 간주되었다. 여자 자신은 함부로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법적인 소유주가 아니었다. 반면에 재산의 이득을 위해서 정략결혼을 했던 귀족층, 중산층의 남편들은 하류층 여자와 접촉하여 사생아를 낳는 일이 자주 있었지만 아내의 부모나 친구는 눈감아 주라고 충고하였다. 간통을 저지른 남녀는 같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 그 수치감과 마을 공동체로부터 받는 비난은 훨씬 심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특히 중산층인 경우에 여성의 명예(honor)란 혼전 순결과 결혼의 정조를 지키는 바로 그것이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내재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sup>7)</sup>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들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어 있어 그들의 역할과 지위는 결혼이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결정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미혼여성들은 미혼 남성에게 비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그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특수한 인문교육관에 내재해 있었던 가치관 때문에 그러 하였다. 다시 말해서 교육에서는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특히 변호사, 성직자, 정치가, 군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 내에서 어떤 중요한 공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었던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음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 내에서 직장을 가질 수 없었던 여성 중에서 일부 상류층 여성들만이 받을 수 있었던 교육은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숙녀로서의 우아함을 갖추는 것에 제한되었다. 즉 숙녀

---

7) Katherine Usher Henderson and Barbara F. McManus, *Half Humankind* (Urbana Champaign: U of Illinois P, 1985), pp. 58-59.

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읽고 쓰는 법과 노래와 악기를 다루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중류층 여자들은 가정의 살림꾼이 되기 위해서 요리와 바느질을 배웠다. 청소년기의 여자들은 남자아이들에 비해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의 예비학교인 문법학교조차 입학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비록 학교에 간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나이(9세)가 되면 학교를 떠나야 했다. 따라서 여성의 문맹률은 자연히 높을 수밖에 없었다.

여성을 위한 교육 중에서 인문교육은 여성의 기독교적인 미덕을 강화시키는 목적에서만 허용되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들의 독서는 ‘경건함’(piety)과 ‘정조관념’(chastity)을 강조하는 책들에 국한되어 있었다. 남성들이 정치가나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읽는 라틴어, 그리스어, 역사, 문법, 논리학, 철학, 수사학 등은 여성에게 필요하지 않는 과목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로맨스(romance)의 경우 여성이 성적인 측면의 부정적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절대로 읽혀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여성에게 지식을 주는 것은 미친 사람에게 칼을 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다.<sup>8)</sup> 이와 같이 여성들은 교육에서의 불평등 뿐 만아니라 법적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권리를 크게 제한 받았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여성의 경우는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땅을 상속받는 것도 제외되었다. 여성들은 얼마간의 현금저축금이나 운이 좋으면 토지를 상속받아 출가를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재산권은 남편에게 속하게 되었으므로 어떤 경제적인 독립도 불가능 했다.<sup>9)</sup>

마지막으로 여성 특히, 가정주부는 힘든 노동에 시달렸다. 상류층의 여인들은 하인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시간이 많았다. 그녀들은 노래, 춤, 정원 산보하기, 바느질, 강아지 돌보기 등을 하면서 무료함을 달랬다.<sup>10)</sup> 반면에 자영업을 하거나 노동자계층의 아내는 힘든 일에 시달렸다. 산업화사회에서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하나의 경제적인 기본 단위를 이루었다. 여성의 노동이 여성의 지위를 상승시켜 주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하는 하인과 시종처럼 취급받았

---

8) *Ibid*, p. 83.

9) Theodore A Jankowski, *Women in Power in Early Mordern Drama* (Urbana Champaign: U of Illinois P, 1992), p. 25.

10) Papp Joseph and Elizabeth Kirkland, *Shakespeare Alive* (New York: Harper & Row, 1997), p. 72.

다. 즉, 일의 분배는 가장인 남편이 하고 그 맡은 일은 아내가 하지만,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은 모두 남편에 의해 통제 당했다. 여성들은 자신의 수입을 개인적인 사치를 위해 쓰거나, 노동의 대가로 보다 높은 지위를 얻거나, 남자들의 전유물인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에 대한 지위와 결혼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은 남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억압과 구속, 복종과 예속의 삶을 살았으며 자신의 능력마저 발휘하지 못했다. 비록, 새로운 문화와 학문,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의 지위는 남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억압과 구속, 남성에 대한 복종과 예속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자베스 시대 여성들은 르네상스의 새로운 물결 속에서도 르네상스의 가치와 이념을 향유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Ⅲ. 데스데모나의 여성성과 비극성

#### 1. 데스데모나의 여성성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영국의 르네상스 시대는 사회 전반에 걸쳐 남성 편견이 팽배해 있었고, 특히 그러한 분위기는 각 가정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에게 바람직한 미덕이란 수동적인 “침묵과 정숙”이었다.<sup>11)</sup> 중상류 계급의 여성들은 개인의 감정이나 개성이 존중받지 못한 가운데 가문을 위해 결혼하였으며, 상하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가부장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축이었다. 남성들은 여성의 복종과 정절 그리고 침묵 속에서 그들의 힘을 지탱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부장적 윤리나 가치를 넘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행동하는 여성성의 유형을 셰익스피어는 작품에 투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 인물이 『오셀로』의 데스데모나이다.

근대 초기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처녀, 아내, 과부, 창녀, 이 네 가지 직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 직분들은 모두 여성의 본질적인 특징이 아닌 여성이 남성과 맺는 관계에 따라서 규정된다. 데스데모나는 너무나 순결하고, 정숙한 여인으로 그려질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그녀가 독립심이 강한 적극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그녀에게서 찾을 수 있는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사실은 그녀가 기꺼이 그 당시 사회의 틀을 깨버리고 오셀로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데스데모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완벽한 여성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면상으로는 결함이 없는 여성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심층적인 측면에서 보면 데스데모나의 내면에는 적극성과 자만심이 강한 감추어진 자존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부인할 수 없다.

데스데모나는 베니스 사회의 원로인 브라반시오의 딸로서 명망있는 청혼자들이 많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흑인 장군 오셀로의 고상한 인품과 그의 전투생활의

11) 이용은, 「맥베스부인의 몸이미지와 의미한계」, 『셰익스피어 비평』. 36/1 (2000): pp. 57-8.4

낭만적인 생활에 매료되어, 부친을 속이고 그와 비밀결혼을 감행한다.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과 결혼 한다는 것은 베니스의 백인 사회의 관습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데스테모나가 유망한 백인 청혼자들은 모두 거절하고, 당시의 정서로는 보기에도 끔찍한 흑인 남자와 결혼 한다는 것은 그녀의 여성성의 중요한 일면이 된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결혼선택은 남성의 통제 속에서 하나의 직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배우자를 택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그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의 통제력에 도전한 것이다.

오셀로가 브라반시오의 고발에 대하여 원로들 앞에서 두 사람의 사랑을 증언할 때, 데스테모나는 자신의 태도를 당당하게 밝힌다.

제가 무어 님을 사랑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만사를 뿌리치고 오직 운명에 맡기게 된 이번 행동을  
보아 세상이 다 알 것입니다. 전 그이의 성품,  
그 자체에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오셀로의 얼굴을 그이 마음에서 발견하고,  
그의 명예와 용맹 속에 저는 제 자신의 영혼과  
운명을 바쳤습니다.

That I did love the Moor, to live with him,  
My downright violence, and scorn of fortunes,  
May trumpet to the world: my heart's subdued  
Even to the utmost pleasure of my lord  
I saw Othello's visage in his mind,  
And to his honours, and his valiant parts  
Did I my soul and fortunes consecrate; (1.3.248-54)

데스테모나는 오셀로를 외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고귀한 인간성을 본 것이다. 이것은 데스테모나가 인간판단의 기준을 얼마나 성실하게 다루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며 그녀의 가치의식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대변해준다. 인간에 대한 판단기준과 가치의식이 건전했기 때문에 인종을 초월한 결혼이 가능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의 인습에는 크게 어긋나는 일이었으므로 그녀는 사실상 당시의 사회질서와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데스테모나는 아버지가 파악하고 있었던 “고분고분한 처녀”(1.2.94)가 아니라, 도덕적 위기에서 봉건적 권위에 대항할 줄 아는 신념과 독립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여성이라 할 수 있다.

데스테모나의 개인적 개체성과 힘은 그녀의 자질과 결합하여 행동으로 표현되지만, 전통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고 복종적인 여성으로만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으로 보여질 뿐이다. 또한 데스테모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우는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대응하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여성임에 틀림없다. 브라반시오는 결혼 전의 여성들은 감히 남자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요조숙녀답게 아버지의 배우자 선택에 절대적으로 따라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딸이 자신을 속이고 마음대로 남편을 선택한 사실에 크게 실망과 분노를 터뜨린다.

규중처녀란 수줍음이 많은 법입니다.

그렇듯 단정하고 차분하여 행여 마음의 동요가  
조금만 있으면 얼굴을 붉히던 딸이.

**Maiden, never bold;**

**Of spirit so still and quiet that her motion**

**Blush'd at herself. (1.3.94-96)**

엘리자베스 시대의 여성들에게는 배우자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엘리자베스 시대의 여성관에서 밝힌바 있다. 따라서 남편과 아버지의 사이에서 딸의 입장은 당시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란 불확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sup>12)</sup>

브라반시오는 딸이 무어인하고 결혼하게 된 것은 필시 마술에 걸렸기 때문이

---

12) Gayle Green, *Shakespeare and Gender: This That You Call Love*, eds. Deborah Baker and Ivo Kamps (London: Verso, 1995), p. 56.

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데스테모나가 너무 완강하고도 자만에 찬 태도로 자신의 주장을 밝히자, 격분한 나머지 남편과 아버지 중에서 어느 쪽을 따르겠느냐고 최후의 통첩을 알린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해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오셀로와의 결혼의지를 표현한다. 이것은 아버지의 결혼 반대에도 그녀자신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는 데스테모나의 탁월한 인품을 반영한다.

고매하신 아버님,

제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아버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들도 없는 소중한 분으로

첫 번째 의무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 제 남편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의조부님보다 소중하게 받아들였듯이

저 역시 아내로서 이제부터는 남편을 지성껏 섬기려 합니다.

My noble father,

I do perceive here a divided duty.

To you I am bound for life and education;

My life and education both learn me

How to respect you. You are the lord of duty,

I am hitherto your daughter. But here's my husband,

And so much duty as my mother showed

To you, preferring you before her father,

So much I challenge that I may profess

Due to the Moor, my lord. (1.3.178-87)

데스테모나는 부모에 대한 의무와 남편에 대한 의무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명확한 논리로 오셀로를 택한다. 이러한 말과 행동은 아버지 브라반시오에게는 충격적이고 치명적이다. 그는 자기 딸을 “고분고분하고 수줍은 처녀”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야기의 소란을 피우며 자신에게 보고했던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녀의 탁월한 노력과 지혜에 감동한 원로원 의원마저 반대하는 브라반시오에게 “경의 사위는 피부도 검지만 훌륭한 인물이잖소?”(Your son-in-law far more fair than black)(1.3.283-85)라며 브라반시오의 결혼 승낙을 유도한다.

데스테모나는 공작에게 자신도 남편과 함께 사이프러스로 동행하도록 허락을 구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녀의 활달함과 열정은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의 경우에 못지않은 것으로 반대하는 아버지를 피해 오셀로에게로 달려가는 적극성을 지니고 있다. 그녀는 결혼 첫날밤에 사이프러스로 파견되는 남편을 따라가겠다고 아버지와 공작 앞에서 대담하게 자신의 뜻을 밝힌다.

여러 의원님들, 저만 홀로 뒤에 남아  
안일한 생활을 한다면  
아내된 보람도 없거니와  
독수공방은 또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부디 동행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So dear my lords, if I be left behind,  
A mother of peace, and he go to the war,  
The rites for which I love him are bereft me,  
And I a heavy interim shall support  
By his dear absence. Let me go with him. (1.3.255-59)

데스테모나는 외형적 아름다움 이외에도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는 강한 자존의 욕구를 가진 여성이다. 데스테모나의 결혼발표는 당시 베니스 사회로서는 이민족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사건이지만 데스테모나는 아버지나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지킨다. 결혼까지 이르는 두 사람의 과정을 보면 데스테모나의 지혜와 일에 대한 추진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데스테모나의 적극적인 태도는 당시 사회의 여성에 대한 통념을 뛰어넘은 것으로 간주한다.<sup>13)</sup> 즉 그녀는 당시의 전통적인 여성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다. 이것은 결혼결정의 주도권이 남성에게 있으며, 여성은 수동적

13) Carol Thomas Neely, *Broken Nuptical in Shakespeare's Plays* (New Heaven: Yale UP, 1985), p. 126.

으로 남성의 구혼을 기다리는 연애관을 탈피한 것으로서 그녀의 적극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여성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테스데모나는 전쟁으로 인해 남편과 헤어져야 할 상황에서도 한 남성의 아내라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까지 남편과 동행할 것을 자청하고 나선다. 사이프러스에서 남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는 테스데모나의 모습은 남성에게 자신의 운명을 의탁해 살아가는 당시의 여성들과는 달리 남성들 못지않은 사회적 욕구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테스데모나는 적극적이며 열정적인 삶을 사는 여성이지만 이 작품은 바로 최상의 이상적인 여성으로 평가되는 테스데모나가 남성중심의 당시의 통념을 파괴하고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하나 결국 그 현실에 적응해내지 못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 2. 데스데모나의 시련

『오셀로』가 쓰여진 시대인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의 영국에는 많은 흑인들이 살았다. 이는 1596년과 1601년에 발표된 엘리자베스 여왕의 흑인 추방 명령으로 입증된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우리’ 백성들을 위해 흑인들을 영국에서 추방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sup>14)</sup> 엘리자베스 여왕이 백인과 기독교인들을 ‘우리’ 백성이라고 칭하고, 흑인들과 비 기독교인을 ‘그들’이라 부르며 대조적인 것은 ‘우리’를 형성하는 우월한 유럽문화와 ‘그들’을 형성하는 열등한 비 유럽문화 사이의 차이를 설정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차이는 타 인종들에 대한 백인들의 패권(hegemony)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엘리자베스시대는 흑백간의 결혼은 사회적 금기였으므로, 백인여성과 흑인 남성의 결합은 베니스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사회적 금기를 위반하고 오셀로와 결혼하기 위해 데스데모나는 계급적 특권을 포기해야 했다. 자신의 부재기간 동안 데스데모나를 그녀의 신분에게 맞게 대우하여 보살피 달라는 오셀로의 청은 브라반시오에 의해 한 마디로 거절된다. 이는 데스데모나가 누렸던 신분적 인종적 특권의 박탈을 의미한다.

16-17세기의 영국인들은 흑백간의 결혼에 대한 편견이 가미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흑인과 백인의 결합에서 난 아이는 반드시 검은 피부를 가지게 되고 이는 흑인성(blackness)이 백인 배우자까지 내적으로 검게 만들어 버리는 증거로 간주되었다. 이아고가 브라반시오에게 검둥이 손자를 갖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부분과 데스데모나를 검은 잡초라고 부르는 오셀로의 대사를 볼 때, 또 그녀가 오셀로에 의해 창녀로 매도되어 검게 색칠이 될 때, 베니스인들의 이러한 선입견이 암시되어 있다.

흑백 간의 결혼이 베니스 사회에서 얼마나 금기시 되고 있었는지는 브라반시오에게 데스데모나의 가출을 알리는 이아고와 로드리고의 대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난다. 로드리고는 흑백간의 결혼을 인간과 짐승의 성적 결합으로 묘사한다.

---

14) Naman Karen, "And Wash the Ethiop White: Femininity and the Monstrous in *Othello*," *Critical Essays on Shakespeare's Othello*, ed. Anthony Gerald Barthelemy (New York: G. K. Hall, 1994), p. 129.

바바리 말이 나리네 따님을 올라타고 있어요.

히 잉 우는 외손들이 생기게 된다니까요.

글쎄, 경주용 말, 스페인 말들이 일가친척이 되고 만다니까요.

**You'll have your daughter covered with a Barbary horse;**

**You'll have your nephews, neigh to you:**

**You'll have coursers for cousins, and gennets for germans. (1.1.110-13)**

에밀리아(Emilia)도 오셀로와 데스테모나의 결혼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데스테모나의 선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오셀로가 데스테모나를 오해하여 죽인 것을 안 후 에밀리아의 인종적 감정은 더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는 오셀로를 “검은 악마”(black devil), “바보”(a gull), “무식하고 더러운 멍청이”(a dolt as ignorant as dirt), “악당”(a villain)이라 부르며 저주한다. 에밀리아의 말 속에는 당시 흑인들을 악마적 존재와 미련한 야만인으로 일반화시키던 백인 중심적 이데올로기가 드러난다. 그녀는 “아씨는 이 더러운 결혼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셨어”(She was too fond of her most filthy bargain.)(5.2.158)라고 말한다. 또한 오셀로와의 결혼은 오셀로에게 가해졌던 부정적인 의미가 데스테모나에게 투영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이야고는 1막에서 “무어인은 변덕이 심하거든...지금은 로커스트 열매처럼 달겠지만 이내 콜로퀀티다처럼 쓰디쓴 질테니.” (These Moors are changeable in their wills; ...The food that to him now is as luscious as locusts, shall be to him shortly as acerb as the coloquintiba.) (1.3.351-52)라며 흑인 오셀로의 성욕에 대한 편견을 근거 없이 데스테모나에게로 전치시킨다. 이처럼 타인종과의 결혼은 데스테모나에게 오셀로와 부정적 의미들을 공유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든다. 그러나 그녀가 직면한 것은 단순히 타인종과의 결혼의 위험성만이 아니라 베니스 사회의 가부장주의 이데올로기라는 커다란 벽에 부딪친 것이다.

가부장주의의 폐쇄적인 공간에 구속되어 있는 여성이 아버지의 허락 없이 흑인 남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은 외부의 위협과 맞물려 베니스 사회의 백인 가부장

주의에 큰 위협과 불안을 안겨주기 충분하다. 데스테모나의 이러한 일탈에 대해 백인 남성들은 ‘도둑맞았다’고 표현한다. 오셀로 역시 데스테모나를 소유물로서, 즉 ‘사물’로써 여기며, 그가 가질 수 있는 독점적 특권으로 여긴다. “사랑하는 여인을 다른 인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귀퉁이만 잡고 있을 바엔 차라리 두꺼비가 되어”(I had rather be a toad....than keep a corner in the thing I love/ For others' uses.)(3.3.274-76)라는 대사를 통해 오셀로 자신이 여성을 물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녀를 이야기할 때 ‘교환’, ‘구매’ 또는 ‘도둑맞은’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녀를 버릴 수도 있는 물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데스테모나가 스스로 오셀로와 결혼을 결정하는 자율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셀로에 의해 납치되어 결혼을 강요받았다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편견과 억압 속에서도 데스테모나가 흑백 간의 결혼에 대한 금기를 위반하며 오셀로를 선택하게 된 데는 몇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다. 데스테모나는 오셀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녀는 오셀로의 명예와 용기로 인해 그를 선택했지만 그러한 사랑의 시발점이 된 것은 그의 이야기 때문이다. 데스테모나가 오셀로의 이야기에 공감한 것은 그가 겪은 이국적 경험 때문이었고 그녀는 적어도 처음에는 이국적 낭만적인 서사시의 허구적 주인공으로서의 오셀로를 사랑하며, 그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된다. 데스테모나가 오셀로를 선택하게 된 데는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의 한 문헌에 따르면 적지 않은 여성들이 이국적인 여행기를 듣고 아프리카로 떠났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환상적인 이국성에 이끌려 현실을 버리고 떠난 철없는 여성들을 보여 준다기보다 여성들이 가족과 조국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발길을 돌리게 할 만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억압적임을 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데스테모나가 오셀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오셀로 내부의 충명함을 사모하여 그의 검은 피부색을 너그럽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그녀는 마음속에서 오셀로의 용모를 본 것이다.

나는 오셀로 장군님의 마음 속에서 그분의  
용모를 보았사옵고,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영웅적

행위에 나 자신의 영혼과 장래를 바쳤습니다.

I saw Othello's visage in his mind,  
And to his honours, and his valiant parts  
Did I my soul and fortunes consecrate. (1.3.52-54 )

데스테모나는 가부장 사회가 자신에게 금지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기 원했다. 그녀가 오셀로에게 매력을 느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오셀로가 들려주는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도 그러한 삶을 영위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오셀로는 데스테모나에게 억압된 남성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브라반시오에게 소심하고 조용한 딸로 인식되었던 데스테모나가 오셀로를 만난 후 적극적인 여성으로 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녀는 오셀로가 자신에게 구혼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많은 베니스의 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한다.

데스테모나가 말하는 오셀로를 사랑한 권리란 그녀가 오셀로를 통해서 누리길 원했던 자유를 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의 적극적인 자존심은 그것이 이아고의 계락을 계획하게 된 동기가 된다. 그녀의 자존심은 캐시오의 재임용을 위해 오셀로를 설득할 때도 드러난다. 데스테모나는 싸이프러스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부관 자리를 빼앗긴 캐시오를 복직시키기 위해 오셀로를 집요하게 졸라댄다. 캐시오의 재임용을 주장하는 데스테모나의 적극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자존심은 이아고에 의해 오셀로의 질투심을 부채질하는데 이용된다.

브래들리는 『오셀로』는 어떤 의미에서 역시 이아고의 비극이기도 하며, 이아고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힘(forces)을 풀어놓고 사실은 유혹에 빠져 즉시 멸망해 버리는 철저히 악독하고 “냉담한”(cool) 인간을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sup>15)</sup> 이아고는 공석의 자리였던 부관의 지위에 캐시오가 오르는 부당한 인사 임명에 불만을 품고 내재해 있던 본성을 드러낸다. 게다가 그는 오셀로가 자신의 아내 에밀리아와 간음했다고 의심을 하고 자신의 질투를 오셀로에게 투영시켜 복수한다. 이아고의 질투에서 비롯된 관계는 캐시오를 이용하여 데스테모나와 캐

---

15) Bradley, p. 178.

시오와의 순수한 관계를 불륜으로 엮어냄으로써 오셀로의 질투를 유발시킨다.

왜냐하면 이 음탕한 무어인이  
내 안장에 올라탔단 의심이 부쩍 들고  
그로 인한 생각이 내 속을 독약처럼 파먹어  
마누라엔 마누라로 되갚기 전까지는  
그 무엇으로도 내 영혼의 만족이  
충족시키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충족시킬 수도 없다.

For that I do suspect the lusty Moor  
Hath leap'd into my seat; the thought whereof  
Doth, like a poisonous mineral, gnaw my inwards;  
And nothing can or shall content my soul  
Till I am even'd with him, wife for wife; (2.1.84-288)

이아고는 자신이 걸어놓은 덫에 오셀로가 서서히 걸려들게 한다. 이아고는 자신의 계획대로 깊숙이 파놓은 늪에 오셀로가 빠지게 되면 그는 절대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윽고 이아고는 오셀로에게 비아냥거리듯 “오, 질투심을 조심해요. 그것은 희생물을 비웃으며 잡아먹는 푸른 눈의 괴물이랍니다”(O beware, my lord, of jealousy: /It is the green-eyed monster which doth mock /The meat it feeds on.)(3.3.167-69)라고 경고하는 것마저 잊지 않는다. 오셀로는 비극의 다른 주인공들과는 달리 자기 밖의 여러 힘의 작용을 받는 이른바 대리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희생자로서 철저하게 속임수의 제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sup>16)</sup>

이아고와 오셀로는 성적 질투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헤어 나오지 못하고 모든 기존의 질서정연함을 그들 스스로 파괴해버린다. 즉, 이아고와 오셀로는 상상력에의 부풀려진 질투심에서 자신들의 아내들을 불순하고 더러운 요부로 치부한다. 이아고가 데스데모나에게 자신의 아내 에밀리아를 소개할 때 그의 여성관을

16) 김우탁, 『Othello』, 『셰익스피어 작품 해설(1)』. 한국 셰익스피어학회편:(서울: 범우서적, 2000), p. 65.

엿볼 수 있다.

이봐, 이봐, 당신네는 문 밖에선 그림 같고  
현관에선 딸랑 방울, 부엌에선 들 고양이,  
당신의 상처 속에선 성자이고 화났을 땐 악마이며  
집안일은 대충 하고 잠자리는 밝히잖아.

Come on, come on; you are pictures out of doors,  
Bells in your parlours, wild-cats in your kitchens,  
Saint in your injuries, devils being offended,  
Players in your housewifery, and housewives in your beds. (2.1.108-11)

이아가가 생각하는 여성은 가부장제 사회제도 틀 안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영역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인 부부관계까지도 수동적인 자세여야 하며, 남성의 요구에만 피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에밀리아는 권위적인 남성들의 걸모습 이면에 숨겨진 취약한 속성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당돌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에밀리아는 무력한 데스테모나와는 대조적으로 여성들 위에 군림하여 지배하려드는 남성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남자를 한두 해를 가지고는 몰라요.  
그들은 다 뱃속이고 우린 모두 음식인데  
허기진 듯 집어먹고 일단 배부르면  
우릴 내뱉어요.

This not a year or two shows us a man.  
They are all but stomachs, and we all but food;  
They eat us hungerly, and when they are full,  
They belch us. (3.4.97-100)

셰익스피어는 에밀리아의 눈과 입을 통해 여성이 상실한 언어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 여성의 잠재 능력을 드러내고 드러내 보임으로써 에밀리아는 남편 이아고와의 성 관계에서도 상당히 능동적인 자세를 보인다. 따라서 이아고에게는 에밀리아가 자신의 통제력 밖에 있는 통제 불능의 대상이 되어 심지어 오셀로와 자신의 아내가 어떤 불륜을 저지르는 것으로 상상하여 성적 질투심을 노골적으로 자신의 계략으로 표현한다. 성적인 질투심은 인간의 감정을 가장 심하게 자극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특히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어 인간을 동물적이 되게 하여 인간성을 혼돈으로 몰아넣어 결국은 피를 흘리게 하 마는 것이므로 오셀로의 인품이 동물적으로 타락된 것은 필연적이다.<sup>17)</sup>

종족 우월주의를 토대로 하는 독선에 빠져 있는 이아고는 자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오셀로는 하찮고 미개한 인물이어서 자신의 의도된 계략대로 이끌기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상업도시이자 문명의 도시인 베니스에서 오셀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오셀로는 데스테모나와의 결혼에 대한 브라반시오의 반대에 대해 적극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으로 방어하면서, 다른 이질적 문화 속에서 어떤 열등감도 표출하지 않는다.

내가 이나라를 위해 세운공로들이  
그분의 불평을 입 밖에 낼 수 없게 할 것이다.  
아직 알리진 않았지만..  
그리고 자랑을 해도 괜찮을 때가되면  
공석에서 말하겠지만.. 나는 왕족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니깐  
이번 손에 얻은 행복쯤은  
웅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해준다.

My services which I have done the signiory  
Shall out-tongue his complaints.  
'Tis yet to know ...  
Which, when I know that boasting is an honour,

17) Bradley, p.178.

I shall promulgate... I fetch my life and being  
From men of royal siege, and my demerits  
May speak unbonneted to as proud a fortune  
As this that I have reach'd: (1.2.18-24)

그러나 그는 “무어인”(Moor)이라는 인종적 편견에 관한 이야기, 테스테모나 그리고 브라반시오 등의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 자신이 열등한 인종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이야고는 이렇게 오셀로가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틈을 약점으로 이용하여 오셀로에게 테스테모나의 불신감을 불어넣어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심리적 고통은 이야고나 오셀로가 자신들의 아내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것으로 성적 상상력에 대한 괴물 같은 질투심에서 비롯된다.

테스테모나가 오셀로의 알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불신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에밀리아가 질투라는 것에 대해 한 다음의 대사는 질투심의 성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질투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라고요.  
그건 스스로 생겨나 스스로 태어나는 한 마리 괴물이랍니다.

They are not ever jealous for the cause,  
But jealous for they're jealous. 'Tis a monster  
Begot upon itself, born on itself. (3.4.154-56)

질투에 대한 에밀리아의 명확하고 친절한 설명처럼, 질투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산출된 정당한 것이 아니라 상상에 의해서 스스로 창조되는 악의 존재이다. 또한 정당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상에 의해서 생겨난 질투는 그 자체만으로 파괴적인 힘을 갖는다. 질투가 갖는 파괴력은 질투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뿐이 아니라 그 질투를 키워나가는 본인의 생명력 까지도 위협한다. 특히 성적 질투는 오

셀로와 이아고에게 있어서, 더 나아가서 베니스라는 문명사회의 모든 남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파괴적인 힘을 갖는다. 왜냐하면 여성을 소유물로 간주하는 베니스의 남성들에게 있어서 성적 질투심은 곧 아내의 간통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글턴(Terry Eagleton)의 “질투는 그것의 목적에 맞게 세상을 조작하는 폭군 같은 언어이고, 증거를 그것의 이익 쪽으로 돌리는 가장 독재적인 법률이다.”<sup>18)</sup> 라는 언급은 질투의 전복적이고 파괴적인 속성을 잘 이야기하고 있다.

이아고의 눈을 통해서 데스테모나의 순결을 의심하게된 오셀로는 “이놈, 내 사랑 그녀가 창녀임을 확실히 증명해라, 그걸 확실히 해.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내놔라”(Villain be sure thou prove my love a whore; / Be sure of it. Give me the ocular proof.)(3.3.360-61)라며, 자신의 소유물에 의해서 혼돈의 상태에 빠져들어 파멸하게 될 자신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은 적어도 자신의 아내에 대한 진실한 사랑에서 오는 배신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은 아니다. 오히려 여성의 언어와 성을 철저히 지배하고 말살시킴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가부장제하에서 여성은 단지 남성을 좀 더 명예롭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물건들’(things)중 하나인 데스테모나가 오셀로의 명예를 실추시켜 무질서의 혼돈의 원인이 된다는 것에 오셀로는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오셀로는 “..내 그대 사랑 앓는다면 내 영혼 파멸하고 내 그대 사랑 앓을 때 혼돈은 다시오리”(…Perdition catch my soul /But I do love thee; and when I love thee not, /Chaos is come again.)(3.3.90-91)라며 그 혼돈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분노하며 눈에 보이는 실증적인 증거를 당장 제시 할 것을 요구한다. 이아고는 자신의 직위 상승에 방해물이자 장애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캐시오와 오셀로를 제거하기위해서 이러한 남성들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던 데스테모나의 순진함과 강한 자존심을 이용한다. 그리고 오셀로는 데스테모나의 모든 언행을 캐시오와 결부 지으며 성적 질투심으로 혼란을 겪는다.

이제 이 혼란의 종지부를 찍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만이 필요하다. 오셀로가 데스테모나에게 결혼 후 처음으로 선물한 “손수건”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그리고 이아고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자의 정절을 손수건이란 매개체를 통해 가시화한다.

18) Terry Eagleton, *William Shakespeare* (Oxford & Cambridge: Blackwell, 1995), p. 67.

여자의 정절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요.

그리고 그렇지도 않은데 정숙한 여자라고 하는 세상인데요.

그렇지만 이게 손수건이라면

Her honour is an essence that's not seen,

They have it very often that have it not:

But for the handkerchief (5.1.16-18)

이 손수건은 오셀로가 데스테모나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 소유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뉴만의 지적처럼 르네상스 시대에 남성이 여성의 손수건을 소유한다는 것은 간통의 증거로 간주되었고,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는 엄한 처벌을 감당해야만 했다.<sup>19)</sup> 따라서 손수건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여성이 순결을 잃어버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손수건은 차갑고 냉담한 쇠사슬로 된 족쇄와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여성을 옹아매는 용도로는 손수건이 쇠사슬의 족쇄보다 강력한 역할을 거뜬히 해낸다. 오셀로는 데스테모나의 순결성을 상징하는 손수건을 통해 데스테모나의 운명을 결정지으려는 것이다. 그 운명은 음탕한 매춘부가 되느냐, 아니면 정숙한 여성으로서 신성시되느냐의 극단적인 파멸만을 남겨놓는다.

여성은 개인의 내재적인 장점으로서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경제적 가치에 의해 그 역할이 정해지고, 남성들 간에 사고 팔고 교환될 수 있는 시장품목에 불과하다. 남성은 여성을 사고 파는 반면, 남성들은 그 교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sup>20)</sup> 따라서 소모품으로서의 여성의 운명은 공식석상에서 남성의 명예를 높여줄 때 그 생명력이 유지되지만, 남성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는 오히려 그 생명력이 꺾이게 된다. 오셀로는 부인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자신을 향한 “경멸하는 시간의 느린 부동의 손가락질”(The fixed figure for the time of

19) Newman, pp. 61-67.

20) Irigaray Luce, "Women on the Market and Commodities among Themselves," *This Sex Is Not One*, trans. Catherine Poter (Ithaca: Cornell UP, 1985), pp. 170-91.

scorn)(5.2.53)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오셀로는 자신의 생명이 유지되던 테스테모나라는 샘에서 쫓겨났고, 그 곳에는 다른 더러운 생명이 움트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심장을 갈무리해 둔 곳  
내가 살거나 아니면 삶을 유지 못하는 곳  
내 생명수가 흐르거나 말라붙을 샘  
바로 그곳에서 버림을 당하거나  
또는 더러운 두꺼비 쌍쌍이 뒤엉키어  
알 까는 웅덩이로 그곳을 지키게 된다면!

But there where I have garner'd up my heart,  
Where either I must live or bear no life,  
The fountain from the which my current runs  
Or else dries up - to be discarded thence  
Or keep it as a cistern for foul toads  
To knot and gender in! (5.2.56-61)

오셀로는 손수건을 잃어버린 테스테모나를 두고 급기야 “못사람의 노리개 같은 것”(O thou public commoner!)(4.2.72), “뻔뻔스런 갈보년”(Impudent strumpet!)(5.2.80)이라며 매춘부로 전락시키는데 이는 비앙카(Bianca)의 손에 넘어간 손수건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 이야고는 비앙카를 두고 “그 계집은 자신의 욕망을 팔아서 빵과 옷을 사는데 고것이 캐시오에게 완전히 빠져 있다”(A housewife that by selling her desires /Buys herself bread and clothes. It is a creature /That dotes on Cassio.)(5.1.94-96)라며 그녀를 저급하게 몸 파는 창녀로 취급한다.

손수건을 빼껴달라는 캐시오의 요구에 비앙카는 “무늬를 전부 빼껴야 한다고! ...이건 어떤 음탕한 년의 정표야”(I must take out the work?. / This is some minx's token)(5.1.48-51)라며 같은 여성의 손수건은 부정한 것으로 치부한다. 비

양카는 남성들의 지배에 물들어 자신도 모르게 여성 본래의 성적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다. 여기에서 셰익스피어는 관객들로 하여금 여성들이 얼마나 남성들의 꼭두각시 인형으로 충실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다시말하면, 여성들이 그 꼭두각시 인형을 보며 웃고 즐기는 남성들을 인식하게 하고 은밀한 곳에서 그 꼭두각시를 조정하고 있는 남성들의 진짜 모습을 보도록 유도한다.

본래 주인의 손에서 벗어난 손수건은 여성의 무분별한 성적 타락을 뜻하며 부정을 부인할 수 없는 실질적인 증거가 된다. 더욱이 비앙카의 손에 쥐어진 데스데모나의 손수건은 그 순수한 의미는 사라지고 성적 타락의 의미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딸기 무늬가 수놓인 손수건은 처녀성의 상실을 의미하고, 나아가서 매춘부의 열려진 방을 의미한다. 이 손수건은 역설적이게도 오셀로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어머니가 다시 아들의 아내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남성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성이 다시금 여성을 옹아매도록 부추기는 꼴이 된 셈이다. 셰익스피어가 남성의 지배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유지시키는 하나의 장치로서 이 손수건을 사용한 것은 바로 여성들 스스로 여성을 구속하는데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비앙카가 손수건에 여성의 순결 유무를 가리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했다면, 반대로 에밀리아는 그 손수건을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따라서 그녀는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은 손수건을 이아고에게 별 의심 없이 전해준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에밀리아로 하여금 그 손수건을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도록 함으로써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셰익스피어가 에밀리아의 이런 언행을 관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여성이 점차 다가올 비극을 풀어내는 열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인물임을 사전에 암시하고 있다.

이제 데스데모나는 향기를 잃고 꺾인 장미로서 오셀로에게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장미를 꺾으면 내가 생장의 힘을 다시 주진 못할 테니 시들 수 밖에 없는 법”(When I have pluck'd thy rose, /I cannot give it vital growth again; /It needs must wither.)(5.2.13-15)이다. 데스데모나는 손수건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순결을 잃은 것으로 그 생명력은 꺾인 장미와 같은 것이다. 한 번 꺾인 장미는 더 이상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한 때, 오셀로에

게는 생명의 샘과 같았던 곳이 이제는 다른 두꺼비가 알 까는 더럽고 오염된 웅덩이이자, 생명수의 흐름이 멈춘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곳이 되었다. 따라서 오셀로가 그 누구와도 공유하고 싶지 않은 아니 절대 공유할 수도 공유되어서도 안 되었던 데스테모나의 여성성은 이제 불결하고 추악한 것으로 전락한다. 꺾인 장미가 생명력을 잃듯이 데스테모나의 처녀성은 회복될 수 없다. 결국 오셀로에게 남아있는 선택은 데스테모나를 죽임으로써 그녀를 사랑했던 “명예로운 살인자”(An honourable murderer)(5.2.291)가 되는 것뿐이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창부의 낙인이 찍히고 두 사람 사이가 파괴되어 버린 것을 안 데스테모나는 그 충격으로 반 수면상태에서 에밀리아에게 제대로 대꾸를 하지 못한다.

나에겐 아무도 없어. 에밀리아, 아무말도 말아줘:  
 난 울 수도 없고, 눈물로밖에는  
 대답할 수도 없으니까, 부탁이니 오늘밤  
 내 침대에 신혼때의 홉이불을 깔아줘요. 잊지 말고,  
 내 남편을 불러주세요

I have none, do not talk to me, Emilia:  
 I cannot weep, nor answers have I none,  
 But what should go by water: prithee, tonight  
 Lay on my bed my wedding sheets; remember,  
 And call thy husband hither. (4.2.101-105)

자기 언어를 상실한 데스테모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무력함이 연약한 여성은 물론이고 여성의 언어를 지배하고자 했던 남성 역시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음을 오셀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오셀로는 데스테모나의 입을 통해서 발설되는 언어를 한 인격체가 갖는 아주 자연스러운 권리의 표현으로서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가 성적 방종을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여성을 무력하게 만듦으로써 사회의 무질서를 초래한 장본인이 남성들 자신임을 모르고 있다.

오셀로가 데스데모나를 살해하는 것은 곧 자신의 소유물을 없애는 행위이며, 남성중심의 가부장제하여 이러한 행동은 명실상부하게 그 소유주의 권한으로서 암묵적으로 허용되었다. 따라서 데스데모나의 운명은 전적으로 그녀의 소유주 오셀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오셀로는 데스데모나의 운명을 정의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죽어서도 이렇다면 난 너를 죽여 놓고**

**그 후에 사랑하리.**

**One more, one more!**

**Be thus when thou art dead, and I will kill thee**

**And love thee after. (5.2.17-18)**

이 장면이 의미하는 모습 즉 그의 희생자에게 키스하는 그 살인자의 모습은 감정적 상황에 무자비하고 부적절하게 적용된 '이성'이 접근할 수 있는 궁극적인 불합리한 것들을 상징한다. 오셀로는 자신의 논리가 지극히 타당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판결에 지지대지 동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오셀로는 동성의 남성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성의 여성들에게서는 아니다. 오셀로에게는 동성자들의 판단만이 필요할 뿐이다, 이성들의 판단은 필요 없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오셀로의 가치관은 역시 엘리자베스시대 가부장제하에 남성의 우월성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셰익스피어는 오셀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성을 여성들에게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부장적 사고를 지닌 브라반시오나 이아고 그리고 오셀로에게 있어 여성은 소유물이며 따라서 여성의 순종과 정절을 지키며 침묵해야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데스데모나의 정절을 의심하게 하는 결정적 장치로 등장하는 손수건은 여성의 가치를 사물로 보는 가부장제의 결정적 과정을 보여준다. 엄격한 베니스 사회의 가부장제의 규제를 뛰어넘어 자신의 여성성을 보여 주었던 데스데모나는 흑백 간의 결혼에 대한 사회적 금기를 위반했다. 하지만 베니스사회의 가부장제와

인종주의를 초월 했던 그녀의 시도들은 베니스 사회 속의 편견을 지닌 이아고의 계략에 의해 좌절 된다. 가부장제사회에서 여성은 개체성을 지닐 수 없는 소유물이므로, 그녀는 가부장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여성의 열망자체가 가부장제를 위협할 뿐 아니라 열망의 대상이 흑인이기 때문에 그녀의 적극성인 열망은 훨씬 더 강력하고 위협적이다.



### 3. 데스데모나의 몰락과 비극성

오셀로에 의한 데스데모나의 파괴와 살해는 가부장제의 존립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아내 살해를 정당화시키는 관습은 남성적 성의 정치에서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성의 정절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주춧돌 역할을 한다. 오셀로는 데스데모나를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하고, 부정한 여인은 언젠가는 자기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를 배반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스데모나의 살해는 정당한 행위라고 자위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성 우월적인 가부장적 권위에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나 여성의 시각으로 보면 대등한 인격체들이 만나서 구성하는 사회의 도덕규범을 깨뜨리는 것이 된다.

오셀로는 이아고가 부추기는 데스데모나의 살해를 주저 없이 시행하려고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이아고의 신념이 아닌 오셀로 자신의 확고부동한 신념하에 모든 악행을 자행할 만큼 정당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오셀로가 자위하며 붙들고자 하는 이 정당성은 여성 몰이해라는 뿌리에서 자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근원에서 비롯된 정당성임을 극구 부인한다. 따라서 오셀로는 데스데모나가 부정을 저질렀을 바로 그 침대에서 그녀의 생명을 거두고자 한다. 그는 악의 근원이 생겨난 그곳에서 악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소유물이 사회악을 불러온다면 당연히 그 소유주는 사회악을 거두어 차단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무력한 여성은 한 인격체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조차 허용 받지 못하고 있다.

이아고 : 독약으로 하지 말고 침대에서 목을 조르십시오.

그녀가 오염시킨 바로 그 침대에서요.

오셀로 : 좋아, 좋아. 그 정당성이 만족스러워. 아주 좋아.

Iago : Do it not with poison; strangle her in her bed, even the bed she hath contaminated.

Othello : Good, good! The justice of it please; very good! (4.1.202-04)

오셀로는 질식사 시키는 방법으로 데스테모나의 욕망을 철저히 봉쇄하고자 한다. 여성의 혀는 여성의 성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제 지배에서 남성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신체적 기관이다. 여성의 혀가 열리는 것은 곧 여성의 성적 방종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성이 통제하지 않을 수 없는 여성의 혀는 여성의 성이 갖는 전복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똑같이 갖는다. 여성이 입을 열어 발설하는 것은 남성의 가부장제에 도전하는 것이기에, 남성은 철저히 여성의 입을 봉쇄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오셀로의 명백한 신념하에 이루어지는 데스테모나 단죄 의식 앞에서 데스테모나가 어떤 발설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오셀로로 하여금 그녀의 성적 방종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데스테모나와 같은 상황을 맞고 있는 에밀리아는 이아고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강요당하는 침묵을 깨뜨린다.

밝혀질 거예요. 조용하라고요? 안 돼요.

난 공기처럼 자유롭게 말을 할 거예요.

하늘과 인간과 악마들 모두가, 모두가

나에게 창피를 주더라도 말을 할 거예요.

*'Twill out, 'twill out. I peace!*

*No, I will speak as liberal as the north;*

*Let heaven, and men, and devils, let them all,*

*All, all cry shame against me, yet I'll speak. (5.2.218-20)*

대부분의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권위적인 남성들의 눈에 하찮게 보이는 에밀리아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든 상관없이 자기만의 언어를 되찾고자 한다. 에밀리아가 갖는 언어는 결국, 남성들도 하여금 그들이 여성들에 대해 갖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현실화 되어 그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이 힘은 남성 자신들이 초래한 일이며, 특히 에밀리아의 경우 그녀의 언어가 갖는 실질적인 위협은 그녀를 억압하는 남편 이아고의 몰락을 가져오는 힘이 된다. 셰익스피어는 에밀리아를 통해 닫혀진 여성의 입이 말문을 열면서 갖게 되는 위력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억압에 관한 생각을 보여준

다.

데스테모나의 마지막 대사를 보면 그녀가 오셀로와의 결합을 통해 베니스 사회에서 금기되었던 자신의 욕망을 펼쳐보려 했던 데스테모나의 계획은 오히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오셀로에 의해 좌절된다. 그녀는 자신이 사회적 금기를 깨뜨리고 무어인인 오셀로를 선택한 것이 궁지에 몰리게 된 이유임을 알고 있다. “자기 죄를 생각해봐, /난 죄가 없어요, 당신을 사랑한 것밖엔”(Think on thy sins. /They are loves I bear to you)(5.2.39-40)이라고 고백한다. 또한 데스테모나는 살해자를 묻는 에밀리아에게 자신은 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며 이 비극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대답한다.

에밀리아 : 아, 누가 대체 이랬습니까?

데스테모나 : 누가 한 게 아냐, 나 때문이지. 잘 있어요.

서방님께 안부 말씀드려요. 아 잘 있어요!

(죽는다)

오셀로 : 뭐야, 왜 그녀가 살해됐지?

에밀리아 : 누가 이런 짓을?

오셀로 : 내는 자기를 죽인 게 내가 아니라고 그랬지?

에밀리아 : 그랬어요. 난 사실을 알려야겠어요.

오셀로 : 거짓말쟁이. 그녀는 지옥의 유향불 속에 떨어졌다.

그녀를 죽인 건 바로 나야.

Emilia : O, who has done this deed?

Desdemona : Nobody, I myself, farewell;

commend me to my kind lord, O, farewell!

(she dies.)

Othello : Why, how should she be murder'd?

Emilia : Alas, who knows?

Othello : You heard her say, herself, it was not I.

Emilia : She said so, I must needs report a truth.

Othello : She's like a liar gone to burnign hell,

'Twins I that kill'd her. (5.2.124-32)

결국 데스테모나는 자신의 결혼 침대 위에서 죽음을 맞는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은 결혼을 지켜나가기 위해 순종의 의무를 다하지만 그 의무에 구속되고 죽임을 당하는 아이러니를 낳는다.

여성의 정체성을 인정하려들지 않는 편견을 고수하고 있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오셀로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들은 데스테모나를 예찬했으면서도 가부장적 편견 속에서 자신들처럼 정체성을 가진 독립적 존재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인간 데스테모나를 보지 못하고,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존재로 보았던 것이다. 타 인종과의 결혼을 금하는 가부장적 베니스라는 상업사회 속에서 하나의 대상물이나 소유물로서가 아닌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했던 데스테모나는 사회의 금기를 깨뜨리고 백인 여성으로서 흑인과의 결혼을 선택함으로써 가부장적 질서와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에 도전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용기는 가부장적 사고와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편협한 사고로 인해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대상으로 여겨지며 처절하게 죽어간다. 다시 말해서 한 번은 사회 구조의 폐쇄성으로 또 한 번은 배우자의 편견 속에서 두 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데스테모나의 열성적인 특성과 그녀의 비극성을 좀 더 관찰하기 위해 『오셀로』가 갖는 비극적 요소와 의미를 데스테모나의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근본적인 비극적 원인중의 하나는 바로 데스테모나와 오셀로의 불균형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규범이나 관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종의 반란적 행위로서 그녀의 부친은 물론이고 이아고나 로드리고 등은 동시대의 베니스 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행동이었다. 데스테모나와 함께 베니스의 한 귀족 부인으로서의 전통적인 삶을 영위했어야 할 동급 부류의 남자들과는 전혀 달랐던 이방인을 선택한 것은 일종의 “특이한 기질”이며 그녀 자신도 자신의 행위를 “완전한 폭행”이라고 말하고 있다.<sup>21)</sup>

베니스의 원로원 의원이라는 높은 신분인 브라반시오의 귀한 딸이자 베니스의 모범적인 규수감에 해당하는 데스테모나가 하루아침에 부친의 뜻을 거역한 채

21) Edwards, p. 145.

흑인 무어족 출신인 오셀로와 결혼한다는 것은 이 극의 결말이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 서두에서 미리 암시해 주는 것과도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즉, 결혼도 동일한 수준의 이루어져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대의 균형의 논리에 어긋난 일이었다. 현대의 서양 사회에서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녀들이 자신들의 결혼 상대자를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지만 셰익스피어시대에서는 비록 성인이 된 여성일지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 할 수 가 없었다. 더군다나 원로원 의원의 딸인 높은 신분의 여자가 군인 그것도 흑인과 사랑의 도피를 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사회질서에 어긋난 행동이다.<sup>22)</sup> 이러한 사회적 질서나 전통적 관습에 반하는 보기 드문 행동은 테스테모나가 당시의 이러한 도덕적 사회질서를 무시하고 부친의 의사를 일언지하에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의외의 행위이자 관습의 파괴이다. 두 사람의 이러한 무리한 결혼 행각이 결국은 자신들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도 비극으로 몰고 간다.

더욱더 불행한 것은 이 비극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테스테모나의 행위로 여기고 있는 것이고, 당대의 남성들에게 그녀의 행위는 곧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본질을 어기는 것 일가? 테스테모나는 그녀의 아버지를 속였다. 아버지, 남편, 가족, 계급을 섬기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사회적 질서도 본질적인 것이다. 그것을 어겼을 시에는 모든 것이 파멸이다.<sup>23)</sup>

테스테모나는 자신의 아버지를 속였으며 부친, 남편, 가족, 계급 그리고 신분에 대한 존경심은 자연과도 일치하며 따라서 사회적 질서는 곧 자연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를 파괴하는 것은 모든 것은 자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브라반시오라고하는 부친과 가족 그리고 흑인 오셀로와의 결합이라는 계급 및 신분의 사회적인 질서 파괴는 이 극의 전반부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G. B. Harrison, *Shakespeare's Tragedie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1), p. 133.

23) Kott, p. 96.

테스데모나는 시대를 초월한 여성성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고상하고 고결하며 순수한 영혼을 지닌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극의 진행상 어쩔 수 없이, 비극적 결함으로 작용하는 자존심과 적극적인 성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테스데모나는 진실하다. 그러나 그녀는 실질적으로 매춘부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일 뿐이다. 그러지 않으면 드라마는 효과를 낼 수 없게 되고 오셀로가 어리석어지기 때문이다.”<sup>24)</sup>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엘리자베스 시대의 사람들은 짐승이나 광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인간의 특징을 결정하는 것은 4가지의 요소인 4체액, 즉 “혈액”(blood), “담즙”(choler), “점액”(phlegm), “흑담즙”(melancholy)이 어떠한 비율로 배합되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혼합이 잘된 경우의 창조물은 보다 완벽하고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인간의 성품이나 기질은 이러한 요소의 배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이는 한 가지가 지나칠 경우에는 반드시 격렬한 열정이나 허약함으로 이끌리어 비극을 초래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테스데모나의 경우에는 한 가지 일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는 열정, 즉 적극성으로 오셀로에게서는 타인에 대한 지나친 과신과 격렬함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테스데모나는 오셀로가 질투의 분노의 늪에 빠져들게 된 결정적인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 주는 장본인으로서 그녀의 적극적인 태도와 자존심이 주원인이 된다. 그녀는 카시오의 부관직 복직요청에 대하여 서슴없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 걱정은 마세요. 여기 있는 에밀리아가 증인 이죠.  
틀림없이 복직시켜 드리겠습니다. 염려마세요.  
친구가 된 이상은, 끝까지 도와 드리겠어요.  
우리주인을 자지 못하게 밤새껏 보채겠어요.

---

24) *Ibid.*, p. 94.

들어 주실 때까지 물고 늘어질 작정이예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얘기하고, 식탁에 앉아서도 설교하며,  
그분이 하는 일마다 쫓아 다니며 당신의 청원을 부탁드리겠어요.  
캐시오, 용기를 내세요. 이 일을 부탁받은 이상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해볼 작정입니다.

Do not doubt that: before Emilia here  
I give thee warrant of thy place; assure thee  
If I do vow a friendship, I'll perform it  
To the last article; my lord shall never rest,  
I'll watch him tame, and talk him out of patience;  
His bed shall seem a school, his aboard a shrift,  
With Cassio's suit; therefore be merry, Cassio,  
For thy solicitor shall rather die  
Than give thy cause away. (3.3.19-28)

캐시오의 복직문제에 대해서도 남편의 의사는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그에게 확실한 언지를 주고 나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남편에게 매달리며 졸라댄다. 이때 데스테모나의 입장에서 보면 복직 자체보다도 캐시오에게 자신의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가 마음속에 강하게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셀로는 잃어버린 손수건 때문에 정신이 산란하고 아내의 순결에 대한 의혹이 불꽃처럼 끓어올라서 “손수건, 그 손수건을 내게 가져와요. 내 마음이 지금 의혹으로 끓고 있어요. 그 손수건!”(3.4.93)이라고 미칠 듯이 외치고 있는데도, 데스테모나는 “제발, 캐시오를 복직시켜주세요. 캐시오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말씀해주세요”(3.4.93)라고 애걸 한다. 이러한 행동이 과연 단순한 복직 문제 자체 때문이라면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시간을 다투며 그렇게 졸라 델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따라서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이고 자만심이 강한 그녀의 자존심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부친과 여러 원로원들 앞에서 결혼을 선포하였던 당돌하고 적극적인 모습과 연결된다.

그녀의 캐시오를 향한 자살적인 탄원은 그녀의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솔직함, 결점이 없는 솔직함은 이아고의 사악한 논리에 의해 그것이  
아마도 결합이 없는 계약과 동등한 것이 될 수 있다.<sup>25)</sup>

이와 같이 베이커(Harley Granville- Baker)는 데스테모나의 탄원이 그녀가 갖는  
순수하고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본성을 오셀로는  
불신과 질투로 오해를 했고, 가부장적인 관념으로 재해석 하여 데스테모나를 죽  
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데스테모나의 비극의 직접적인 원인이 손수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 또한 부인  
할 수 없다. 잃어버린 줄 알고 있으면서도“손수건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잃어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3.4.82-84)라고 거짓말을 한 것 또한 브래들리가 해석하  
는 “아름다운 향기”가 결코 아니다. 이점과 관련해서 웹스터(Webster)는 여성의  
자존심에 관한 심리 구조적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아마도 여자라면 누구나 데스테모나가 어떻게 해서 오셀로의  
신뢰와 사랑을 구제하기 위하여 손수건의 분실을 부정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쉽사리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sup>26)</sup>

여자는 누구나 필요하면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같은 입장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부여하는 손수건의 의미는 너무나 엄청나  
다. 이 손수건에는 딸기로 상징되는 행복한 가정이 수놓아있다. 그녀의 자존심이  
가정의 행복을 앗아가 버린 결과가 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 극의 비극은 급속히 전개되어 간다. 이  
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흑인과의 결혼이라는 신분질서의 파괴와, 부친의 뜻을  
거역하는 자연 질서의 파괴로 인한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  
록 그녀의 착한 마음에서 캐시오의 복직 요청에 대한 데스테모나의 행동 하나

25) Harley Granville-Baker, *Prefaces to Shakespeare*, vol. II (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P, 1978), p.49.

26) Margaret Webster, *Shakespeare Without Tears*, ( New. York: Premier Rooks, 1960), p.76.

하나가 오셀로의 분노의 불덩이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오셀로의 질투심은 이아고의 간계와 이간질에 의해서 더욱 구체화되었고, 오셀로 자신의 생각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된다.

결국, 데스테모나라는 한 여성이 당시 사회관습의 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희생되어지는 비극적 결말을 초래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남성중심 사회의 결혼의 모순점과 결혼을 통해 여성이 겪게 되는 갈등을 자세히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데스테모나가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아버지나 주변 사람들 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했지만 데스테모나는 정작자신과 남편 사이의 이해문제에 있어서는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으며, 오셀로는 그녀의 성숙된 사고와 통찰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끝내는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인물들은 가부장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며 여성을 자신들의 소유물로서 길들이고자 할 뿐 여성의 존엄성과 가치를 파악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 시대가 갖는 질서관과 맞물려서 시대적 여성관의 일면을 보여준다. 셰익스피어 역시 이런 부분들을 작품 속에 나타내려 했을지 모른다. 데스테모나 역시 그 시대를 역행하는 적극적인 여성이었지만 시대를 이길 수 없었다. 즉 『오셀로』라는 작품에서 셰익스피어는 여성에 대한 모순된 태도가 존재하고 여성의 본성과 지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보여주는 시대 상황 속에서 여성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 IV. 결론

문학 활동 역시 그것이 속하고 있는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오셀로』에 나타나는 세계관과 여성관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데스데모나를 통한 여성성의 시련 그리고 몰락을 통해서 데스데모나의 여성성의 진정한 비극의 의미를 조명함으로써 이 극이 비극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을 입증했다.

르네상스 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었던 제국주의적, 인종주의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셰익스피어 극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베니스 사회의 흑인 장군 오셀로는 베니스 사회에 편입하기 위해 자신의 인종적 차이를 부인하고 백인 상류층 여성 데스데모나와의 결혼을 선택한다. 오셀로는 자신이 받고 있는 보상과 명예는 그의 능력이 그 사회에서 필요했기 때문이지, 베니스인들이 그를 자신들의 형제로 인정하고, 따라서 그가 받고 있는 명예가 바로 거기에 합당한 지위까지도 수반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데스데모나는 오셀로의 사랑과 결합을 통해 비로소 현실적이고 물질적이며 자기중심적인 베니스적 한계를 벗어나서 자기가 꿈꾸는 이상적 사랑을 추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오셀로는 베니스의 세속적이며 물질적인 가치관에 전혀 물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베니스라는 도시는 그들의 이상주의적 사랑과 결합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된 사회가 아니었다. 데스데모나의 비극은 이런 모순에서 출발 한다. 즉, 오셀로를 사랑하여 그와의 결혼을 선택한 데스데모나는 오셀로 못지않은 용기를 가진 여성이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철저히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인지를 알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녀의 베니스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뛰어 넘는 그녀의 사고방식이다. 그녀는 오셀로의 검은 얼굴을 보았으나 거기에 겁먹이지 않고 오셀로의 마음을 보았으며 그와 인종적, 도덕적 그리고 문화적인 편견에도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 넘었다. 그러나 그

녀의 이상적인 사랑을 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는데 그들의 비극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셀로』는 르네상스 시대 가부장제 사회 내에서의 여성의 저항과 남성 구속의 억압을 보여준다. 데스테모나는 아버지의 허락이 배제된 주체적 결혼을 이루어낸다. 이것은 정략결혼을 통해 여성을 남성과 또 다른 남성 사이의 거래 대상으로 규정하는 가부장제 구조를 깨뜨리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애정과 결혼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자신의 주체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그래서 데스테모나가 모든 남성들이 원하는 아내로서의 자격을 갖춘 여성으로 비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스테모나와 같은 여성으로 살아가는 한계성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 데스테모나는 남성의 사회와 정치에 어두운 짙은 귀족 여성으로서 남성의 지배에 굴복하여 수동적인 삶을 수용하고, 남성들이 쳐놓은 울가미에 자신을 스스로 옹아매었기 때문이다. 남성이 만들어 놓은 규율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여성은 고귀한 사회적 신분으로 대우받는 듯하지만, 그러한 데스테모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억압과 죽음 밖에 없었다.

세익스피어는 관객들에게 그 시대의 남성들에게 그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여성인 데스테모나를 내세워 그녀가 남성 지배적인 세계에 직면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관찰하게 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발견하도록 했다. 데스테모나의 고귀한 성품과 아름다움 때문에 그녀의 처지에 대해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결말에서 데스테모나는 자신의 죽음 앞에 충분히 그녀자신을 변론 할 기회를 얻지 못 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그녀는 죄 없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가 거짓임을 강조하고 오히려 여성의 억압과 순종에 기초한 가부장사회가 결국은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상에 불안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허구임을 나타낸다. 또한 데스테모나의 고귀한 성품과 아름다움 때문에 그녀의 처지에 대해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결말에서 말죽, 언어가 억압된 여성성에 대한 불합리성을 느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데스테모나 자신의 언어를 찾아서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해결에 나섰다. 오셀로의 폭력으로부터 충분히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언어 소유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자멸한다. 데스

데모나가 브라반시오의 딸로서 오셀로의 아내로서 언어를 상실했던 무력한 태도에서 벗어나, 그 당시 그녀가 오셀로와의 결혼을 선택하였을 때처럼 진취적이고 용기 있는 태도로 결혼생활을 해나갔다면, 그녀의 자멸은 물론이고 오셀로의 파멸 또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이 결국 남성 자신의 파멸을 낳는다는 논리가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결론적으로 셰익스피어는 『오셀로』에서 여성의 옹호자로서 그 자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지는 않았지만 남성과 여성이 불평등하게 인식되던 시기에 여성의 우월성이나 가치를 남성 못지않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남녀를 동등하게 보려고 인간의 본질을 남성과 여성의 성적차이로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충돌 속에 통합의 노력을 추구했던 보다 성숙되고 진보적인 인간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보수성과 근대성이 병존했던 시대적 상황의 여성관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셰익스피어의 사고방식은 인간의 가치를 재인식하려는 르네상스적 사고의 반영인 동시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적극적인 인 이미지가 크게 작용 한 것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 BIBLIOGRAPHY

## 1. Primary Source

Shakespeare, William. *Othello*. Ed. E. A. J. Honigmann. London: Thomas Nelson and Sons Ltd. 1997.

## 2. Secondary Sources

Bradley, A. C.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74.

Coleridge, Samuel Taylor. *Lectures on Shakespeare*. London: J. M. Dent & Sons Ltd. 1951.

Dash, Irene G. *Wooing, Wedding, and Power: Women in Shakespeare's Plays*. New York: Columbia UP, 1981.

Dusinberre, Juliet. *Shakespeare and the Nature of Women*. New York: St. Martins P, 1996.

Eagleton, Terry. *William Shakespeare*. Oxford & Cambridge: Blackwell, 1995.

Edwards, Philip. *Shakespeare: A Writer's Progress*. New York: Oxford UP, 1986.

Eliot, T. S. "Shakespeare and The Stoicism of Seneca." *Shakespeare: Othello*. Ed. John Wain. London: Macmillan, 1994.

Ganville-Baker. Harley. *Prefaces to Shakespeare*. Vol. II Princeton, NJ: Princeton UP, 1978.

Green, Gayle. *Shakespeare and Gender: This That ou Call Love*. Eds. Deborah Baker And Ivo Kamps. London: Verso, 1995.

Harrison, G. B. *Shakespeare's Tragedie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1.

Henderson, Katherrine Usher and McManus, Barbara F. *Half Humankind* Urbana Champaign: U. of Illinois P, 1985.

- Jankowski, Theodore A. *Women in Power in Early Modern Drama*. Urbana  
Champaign: U. of Illinois P. 1992.
- Joseph, Papp and McManus, Elizabeth. *Shakespeare Alive*. New York: Harper & Row, 1997.
- Karen, Naman. "And Wash the Ethiop White: Feminity and the Monstrous in *Othello*." *Critical Essays on Shakespeare's Othello*. Ed. Anthony Gerald Barthelemy.  
New York: G .K. Hall, 1994.
- Kelly-Godo, Joanl. "Did Women Have a Renaissance" *Becoming Visible: Women in  
European History*. Ed. Renate Bridenthal and Claudia Koonz.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97.
- Kott, Jon. *Shakespeare Our Contemporary*. Trans. Boleslaw Taborski. London:  
Methuen, 1966.
- Lommba, Ania. *Race and Renaissance Drama*. Manchester: Manchester UP, 1989.
- Luce, Irigaray. "Women on the Market and Commodities among Themselves." *This  
Sex Is Not One*. Trans. Catherine Poter. Ithaca: Cornell UP, 1985.
- Neely, Corol T. "Woman and Men in *Othello*." *Shakespeare Alive*. Eds. C. R. Lenz,  
Gayle Papp, Joseph and Elizabeth Kirkland. New York: Harper & Row, 1997.
- Rabkin, Norman. *Shakespeare and the Common Understanding*. Chicago: Chicago UP, 1967.
- Ridley, M. R. *Othello: the Arden Shakespeare*. London & New York: Methuen, 1964.
- Stone, Lawrenc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New York:  
Harper & Row, 1977.
- Webster, Margaret. *Shakespeare Without Tears*. New York: Premier Rooks. 1960.
- 김경옥.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여성상, Patriarchy and Missogyny」, 박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대학원. 1998.
- 김우탁. 「*Othello*」. 『셰익스피어 작품 해설』. 한국 셰익스피어학회편, 서울: 범우서적,  
2000.
- 윤정은. 『남녀갈등을 통해 본 셰익스피어의 인간이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3.
- 이경식. 『셰익스피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 이대석. 『셰익스피어 극의 이해-비극』.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

- 이용은. 「맥베스부인의 몸 이미지와 의미의 한계」. 『셰익스피어비평』 36/1, 2000.
- 조재희. 『셰익스피어와 정신분석』.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06.
- 하해성. 『오셀로의 연구』. 서울: 푸른사상사, 2002.



<Abstract>

A Study of Desdemona's Feminity and Tragedy in *Othello*

Mi-Kyong Hong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Desdemona's feminity and tragedy in *Othello*. The study is to focus on the conflict and destruction of Desdemona's feminity and the weakness of females' social status within the patriarchal social system of the Elizabethan period. In the patriarchal social system the female was controled by the male. Hence, the female is supposed to be either silent or a dominant woman placing herself in a man's position. Therefore, the gender was a significant way of representing social dramatization of unstable gender relations between man and woman.

Under the patriarchal system, men have tried to maintain their social order by oppressing women's right to free speech. Shakespeare shows the audience how faithfully females can play their roles as puppets of males . Desdemona is perfect example, whose freedom of speech is suppressed just after marrying Othello. A woman whose speech is subordinated as a man's belongings tends to be helpless and powerless. This situation can lead to the destruction of the woman as well as one of the man trying to dominate her.

This play is particularly true when it comes to the cause and effect made by male characters. Throughout this play, the men contend with each other while the women are the victims of their difficult situation. Above all, Desdemona's purity and positiveness strengthen Othello's jealousy by the artifice of Iago. As a result, Desedemona goes through a conflict and a trial. So, according to Iago's purpose, Desdemona results in taking away an innocent life and also ruining her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tion in August, 2008.

feminity. This illustrates males' unconscious commitment to set the opposite sex as their object to ruin, though man and woman end in becoming the victim of the society and its system. In other words, those, who desperately want to maintain societal order are ironically turned into the ones responsible for their social disorder by incapacitating their women.

Unfortunately, Desdemona didn't show enough courage and strength before her death. Her weak behaviour before death stands in contrast to her bold explanation of that she gave her union with Othello before the Senate. Venice doesn't accept Desdemona's purity or positiveness of Desdemona beyond that time. Desdemona is victimized by the Venetian world as well as Othello, as the artifice of Iago.

In conclusion, in Shakespearean tragedy the destroyer of orders, including natural and social order and the gradation among all creatures, finally comes to end. In spite of her father's strong advice, the unfortunate heroine has violated the conventional order by marrying Othello, a stranger from her race, class and society. From this oddly matched couple, we can see a kind of disproportionableness, and not to establish without new ideas about marriage among races in our mind balance. Therefore, the attraction that Venetian girl feels towards Othello is aberrant and contrary to all the laws of nature.